“다른 메디컬 드라마보다 더 따뜻한 감동 드려요”

MBC ‘병원선’ 송은재 役 하지원
거제 올로케이션으로 리얼리티 살려

“초보 의사들이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곳, 그 엄혹한 생존게임의 현장이 ‘병원선’이 선택한 주 무대입니다. 메디컬 드라마의 새로운 무대를 개척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남자’ 바통을 이어 오는 30일 밤 10시 시작하는 MBC TV 새 수목극 ‘병원선’은 배를 타고 의료활동을 펼치는 의사들의 이야기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병원선을 타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섬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진료하고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황진이’ ‘대왕세종’ ‘비밀의 문’ 등의 윤선주 작가가 집필을 맡는다.

제작진은 28일 “병원선엔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술장비는 아예 없다. 게다가 숙련된 의사도 없다. 의대를 막 졸업한 청년 의사들이 병역의무 대신해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원(39)이 실력파 외과의 송은재 역을 맡았다. 그가 의사를 연기하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하지원은 “정말 외과의사 송은재의 느낌, 신뢰감을 주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를 읽는다든가, 유튜브에서 수술 장면들을 찾아 공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본 이외에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병원선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는 그는 “섬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선을 정말 첫사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하시더라. 많은 메디컬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따뜻한 감동과 재미가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

강민혁(26)은 내과의 곽현 역을 맡았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곽현은 날 때부터 꼬임 없는 따뜻한 공감능력의 소유자다.

그는 “극중 송은재(하지원 분) 선생님처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이서원, 김인식, 김광규, 정경순, 이한위, 권민아, 장서원 등이 출연한다.

제작진은 “청년 의사들이 때늦은 사춘기를 극복하고 진짜 의사로, 진짜 어른으로,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는 거제시에서 올로케이션 촬영 중이다. 일반 선박을 개조해 병원선으로 탈바꿈시켰다.

제작진은 “실제 선박과 섬에서의 올로케이션 촬영이 극의 리얼리티를 더 빛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원은 “송은재가 거제로 떠나 거주지를 옮긴 것처럼 저 역시 이사를 간 기분이다. 거제도에 아파트를 얻어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울에서 가져다 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내·엄마·배우…
1인3역 잘하고 싶어요”

첫 딸 낳은 배우 박하선

“아내이자 엄마, 배우로서 조화롭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첫딸을 낳은 배우 박하선(30)은 28일 서면 인터뷰에서 1인3역을 모두 잘해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하선은 “일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개인 생활에서도 행복감을 느낀다”면서 “조만간 배우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하선은 5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청년경찰’에서 경찰대 군기반장 주희역을 맡아 비중은 작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영화 흥행 소감으로 “잘 차려진 밥상에 작은 숟가락 하나를 얹은 기분”이라면서 “강인한 여성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신스틸러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영화나 선배들을 보면 비중에 상관없이 임팩트 있는 캐릭터를 많이 하고, 그 모습이 좋아보였다”면서 “배우로서 신인처럼 새롭고 신선하게 보이는 것에 목말라 있기도 했다”며 출연 계기를 밝혔다.

박하선은 “영화 속 모든 장면이 도전이었다. 많은 남자 사이에서 밀리지 않고 제압해야 했기 때문에 다 기억에 남는 것 같다”며 “무게를 잡는 역할이라 촬영 현장에서 박서준·강하늘 씨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두 분이 서로 챙기면서 어울리고, 재미있게 촬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떠올렸다.

박하선은 과거 서울극장에 친구 따라가 갔다가 현장에 있던 매니저에 캐스팅돼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엉뚱 발랄한 캐릭터로 주목받은 뒤 ‘혼술남녀’, ‘트윅스’, ‘쓰리 데이즈’ 등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또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박하선은 “제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기존의 모습에 갇혀있기 싫어서 다양하게 도전하고 있다.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역할, 새롭고 신선한 캐릭터라면 안 가리고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하선은 남편 류수영(38)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사람은 2년 열애 끝에 지난 1월 22일 결혼했다.

“류수영 씨와는 육아나 집안일에 치이지 말자, 또 서로 연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든든합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트아시아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0 1대 100(재)	30 시청자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받침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밥상(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톡쏘는 인터뷰 소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텔레몬스터 25 수빈 스토리 2 55 별별며느리 (재)	00 뉴스브리핑
3	00 숨터(재) 05 KBS 스페셜(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리얼스토리 눈(재)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재)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작(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광복절기획 KBS 스페셜 〈전쟁과 여성 3부작〉(재)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받침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페루 문명기행 2부 -프레 잉카, 베일을 벗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장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전복 버섯밥과 멸치 고추조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성난 물고기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에스토니아에 반할지도 2부 한 여름의 쉼표 소오마와 페르누〉
21:30 한국기행 〈마당 넓은 집 2부 파도 위의 집〉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1인 방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24:30 한국영화특선 〈글러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9일(음 7월 8일 戊子)

子 48년생 상대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절실하 도다. 60년생 습관이란 위험의 자매이니라. 72년생 치열함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84년생 인위적이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행운의 숫자 : 51, 24

丑 49년생 차분하게 마음먹되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61년생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낫다. 73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85년생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39, 62

寅 50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리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선택할 필요 없다. 62년생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74년생 무의미하다면 과감하게 버려라. 86년생 도리를 따르고 이치에 순응하자. 행운의 숫자 : 49, 36

卯 51년생 세태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63년생 참된 것과 거짓이 섞이어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다. 75년생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니 미리 알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87년생 시종일관하자. 행운의 숫자 : 73, 87

辰 52년생 멀리 있는 남에게 구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알뜰하다. 64년생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절실하도다. 76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인다. 88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4, 27

巳 53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65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77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놓인다. 89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10, 12

午 42년생 고생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리라. 54년생 일일이 확인하라. 66년생 셈이 밝고 명확해야만 한다. 78년생 항심으로 대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90년생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바의 방향이 행운과 일치하겠다. 행운의 숫자 : 30, 34

未 43년생 변화를 꾀한다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55년생 뻔히 알면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도다. 67년생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옳다. 79년생 집중해야만 효율성이 제고된다. 91년생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20

申 44년생 외형까지 관리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56년생 최선을 다해야만 겨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국면이다. 68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80년생 국면 타개에 매진해야만 할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78, 95

酉 45년생 이타적 조처가 자신을 이롭게 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57년생 배가 된 노력이 경주돼야 승산이 있다. 69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자. 81년생 현재 드러난 정황은 별것 아니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4, 57

戌 46년생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장차 큰 이익이 될 것이다. 58년생 의무를 다 한다면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리라. 70년생 이웃과의 관계가 긴요하다. 8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속에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53, 08

亥 47년생 정체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59년생 실행 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소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71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만 할 것이다. 83년생 호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성과가 크다. 행운의 숫자 : 68, 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